

LiCl-KCl 및 LiCl-KCl-UCl₃ 혼합염의 이송특성 비교

강희석, 우문식, 최세영, 김정국, 이한수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045
hskang1@kaeri.re.kr

1. 서론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연료 원료인 U 및 TRU 금속의 회수를 위한 전식의 고온용융염 전해정련조에서 사용되는 전해액은 고온에서 액상으로 유지되는 LiCl-KCl 용융염이며, 이 용융염에는 U 및 TRU 금속과 여러 불순물이 포함된 양극에서 전기화학적으로 순수한 우라늄만 선택적으로 음극에 전착 분리시키기 위하여 초기 salt 용액에 충분한 양의 우라늄 이온이 존재해 있어야 한다. 초기 salt 용액 내 우라늄 이온의 공급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고가의 CdCl₂를 대신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Cd의 염소화반응을 거쳐 제조된 CdCl₂를 산화제로 사용하여 LiCl-KCl-UCl₃ 용융염의 제조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공정에서 제조된 LiCl-KCl-UCl₃ 용융염을 전해정련 공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LiCl-KCl-UCl₃ 용융염 제조반응기에서 반응기 하부의 Cd 층을 제외하고 수작업으로 직접 용융염을 분리시켜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LiCl-KCl-UCl₃ 용융염의 제조반응 직후 용융온도에서 펠렛 제조 장치까지 액체 상태로 이송한 다음 펠렛 제조 장치에서 미리 크기와 모양이 정해진 몰드를 이용하여 펠렛 형태로 고화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iCl-KCl-UCl₃ 용융염 제조반응 직후 용융온도에서의 용융염의 이송 및 펠렛 제조실험을 수행하였다.

2. 내용 및 결과

2.1 용융염 이송 및 펠렛제조장치

LiCl-KCl-UCl₃ 용융염 이송 및 펠렛 제조실험을 위해 실험장치를 설계·제작하였다. 장치의 구조는 그림 1에 보인바와 같이 크게 용융염 수직유도관, 용융염 수평 이송관, 펠렛제조장치 연결 수직 이송관, 그리고 펠렛 제조장치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LiCl-KCl-UCl₃ 용융염 제조 시에 사용되는 염소가스의 강한 부식성과 용융염의 수분에 대한 강한 반응성 때문에 용융염의 이송 및

펠렛 제조장치의 내부 조작은 불활성 가스(알곤)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염소의 강한 부식성과 400°C 이상의 고온에서 수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장치의 내부는 모두 내부식성을 갖는 스테인레스 스틸(STS-316L) 재질을 사용하였다. 이송관의 외부는 400°C 이상의 고온을 유지하기 위해 반응기 및 펠렛제조장치 내부로 삽입되는 부분은 투브히터로,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끝부분까지 히터로 감아서 제작하였다. 용융염 펠렛 제조장치 내부는 그림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펠렛 제조용 몰드를 설치하였다. 몰드의 재질은 STS316, OD 90mm, T 3mm, H 250mm의 크기로 제작하였으며, 그림 3에서 보인 바와 같이 몰드 내부는 펠렛의 제조 크기를 조절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하였다. 격벽의 재질도 STS316을 사용하였고, T 3mm의 두께로 제작하였다. 격벽의 맨 위쪽 중앙 부분은 격벽의 전체 높이보다 약간 낮게 제작하여 이송된 용융염이 이송관에서 공급될 때 분사의 불균형으로 몰드의 격벽에 의해 나뉘어진 네 부분의 공간 중 어느 한쪽 공간이 먼저 채워지는 경우 인접한 공간으로 넘쳐 흘러들어가서 덜 채워진 부분을 순차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용융염 이송관의 내·외부 온도를 감시 및 조절하기 위해 elbow connector 내부 및 이송관 외벽에 그림 3과 같이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2.2 LiCl-KCl 및 LiCl-KCl-UCl₃ 용융염 이송 특성 비교

제작된 용융염 이송 및 펠렛 제조장치를 LiCl-KCl-UCl₃ 용융염 제조장치에 연결하고 용융염의 이송 및 펠렛 제조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은 고온에서 용융 및 용기 내 압력 조절에 의해 액체상태의 용융염을 고온에서 이송해야 하므로 실험장치 제작 직후의 초기 실험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우라늄(UCl₃)을 제외한 LiCl-KCl 용융염을 사용하여 이송 및 펠렛 제조실험을 수행하였다. LiCl-KCl-UCl₃ 용융염 제조반응기 내의

실험조건은 UCl_3 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게 조성하였다. Cd 787.4g 과 LiCl-KCl 537.3g 을 UCl_3 용융염 제조 반응기에 넣고, LiCl-KCl 용융염의 용융점은 372°C 이지만 LiCl-KCl-UCl_3 용융염 제조 반응기의 온도는 용융염 제조 온도인 600°C로 유지하였다. 펠렛 제조장치 내부는 90°C로 유지하면서[1] UCl_3 제조반응기에 알곤 가스를 3~5bar로 가압하여 용융염의 이송실험을 수행하였다. LiCl-KCl 용융염의 이송이 확인된 후 펠렛 제조장치 내부의 온도를 상온으로 냉각시킨 다음 펠렛 제조장치의 플랜지를 해체하고 그림 4(a)와 같은 용융염 펠렛의 제조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LiCl-KCl 용융염의 이송 결과를 바탕으로 LiCl-KCl-UCl_3 용융염 이송실험도 수행하였다. 이미 LiCl-KCl 용융염 이송 실험 시 LiCl-KCl-UCl_3 용융염 제조 온도와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용융염 제조 온도인 600°C로 유지하여 이송실험을 수행한 결과 그림 4(b)와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 실험결과에 기초하여 펠렛제조장치에서 격벽의 형태만 변경시킨다면 원하는 모양의 원하는 크기로 이송 후 펠렛 제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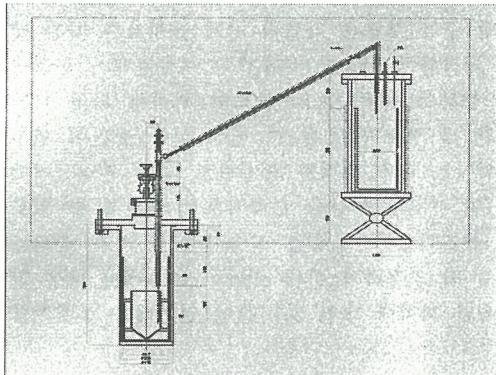


Fig. 1. Schematic diagram of LiCl-KCl-UCl_3 eutectic salt transfer and pelletiz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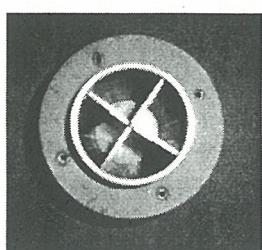


Fig. 2. LiCl-KCl-UCl_3 eutectic salt pelletizer and mold with a part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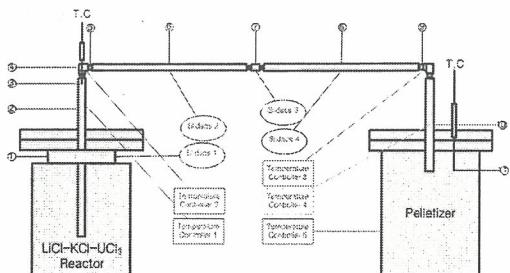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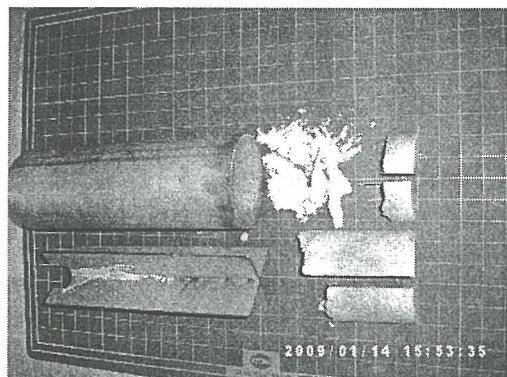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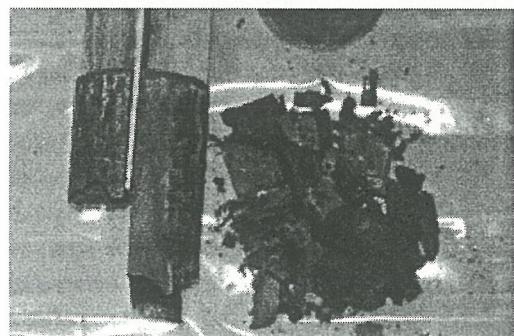


Fig. 3. Temperature control system of LiCl-KCl molten salt transfer and pelletizer



(a)



(b)

Fig. 4. Transferred pellets of (a) LiCl-KCl and (b) LiCl-KCl-UCl_3 eutectic molten salt

3.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4. 참고문헌

- [1] 서중석 외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 개발”, KAERI/RR-2773/2006 (2006).